

도민 입장에서 현안 해결 등 대의기관 역할 충실

제민일보·제주도의회 공동 기획 하수처리 위기 직면한 제주 <하>

제주도가 원활한 하수처리 등을 위해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늘리고 있다. 일부 하수처리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역 주민 반발에 공사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하수처리난 해소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 확충이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전문가 등이 도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원인 진단 통한 해법 제시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예산심사 등 충분히 활용
최근 발생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 관련 대안 제시
도시·환경 현안 해결 등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요구

△도민 입장 대책 마련 요구

제주도의회는 각종 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물론 하수처리난 우려와 같은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행정기관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로 인한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제주지역 하수처리 대안 우

려를 키우고 있는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책임론과 함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동 2동)은 지난달 마무리한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입찰을 강행해서 무용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한 뒤 "증설이 제때 되지 않으면 도내 주요 사업들은 모

두 멈추고 환경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장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도 "에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공사 기간을 1년 앞당길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무용찰 됐다"며 "공사 기간 부족이나 무중단으로 인한 난공사, 지하화에 따른 해수유입, 암반 등 원인이 진단됐는데 어떤 대책으로 세 번째 입찰을 할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절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지역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발생한 현안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행정의 체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이외에도 근본적인 하수처리난 해소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수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 반대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주민 홍보 및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윤주형 기자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장을 점검해 주민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더는 미뤄선 안 돼”



인터뷰 - 강성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거나, 제주도에 요구했던 사항은.

제주 난개발과 환경 수용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후반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안 심사할 때는 현장을 반드시 점검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관련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만들고, 지하수 수량 및 수질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전문 연구기관인 지하수연구센터와 제주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물전문분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수처리난 우려 등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지.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리, 유지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과거 4개 시·군 기반시설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도 통계부터 맞지 않았고, 상수도 유수율 문제, 예측 하수량 불일치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12년에 수립해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8년에야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인구 유입, 건설 붐이 일어났

고, 지역주민 수용 협의는 지연됐다. 결국 하수처리장은 2014년부터 완전히 포화상태에 직면했다. 필수시설인 상하수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증설에 관해서 원인자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해양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합리적인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하수처리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해법과 중·장기적인 해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최종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사업도 최대한 일찍 착공해 계획한 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서 의무화된 중수도처리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만개가 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행정이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면 하수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을 뒤야 하는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최적



화한다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등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이로서 제주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주도의 하수처리 비용은 타 시도에 비해 높다. 도심의 밀집화가 낮고, 그에 따라 하수관로가 길고, 평평한 지형이 아니라 수백개의 중계, 간이펌프장을 이용해서 최종하수처리장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하수 유출도 걱정이다. 도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다. 차량과 주차 문제가 산적해 있고, 차고지증명제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실시,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와 함께 유료주차장 확대 역시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제주 미래에 제주도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현관입구/거실베란다/차고지/계단비가림

010-6693-3254

복층렉산 이용
복층픽스 설치

렉산 제주캐노픽스 제주대리점



위치:서광로103 (오라오거리 타이어뱅크 & SK주유소옆)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주입구

공간의
물을
밀어냄

공간의
물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